

합동전화
로카디파파, 2018 년 7 월 8 일

젠페스트 특별 합동전화 - 마닐라로부터

미리 보기, 신호와 소개

클라라 라미레츠: 마닐라에서 인사드립니다! 방금 젠페스트가 끝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3 일이었습니다! 물론, 조금밖에 자지 못했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로메오 비탈 (로메): 이 젠페스트의 여러 순간들과 우리가 이 곳 마닐라에서 만난 예외적인 몇 사람의 스토리도 여러분에게 전해 줄 것입니다.

클라라와 로메오: 그러면... 시작합니다!
(음악과 타이틀)

특집 합동전화
젠페스트- 모든 장벽을 넘어서
마닐라, 필리핀 2018

(음악)

로메오 비탈 (로메): 안녕하세요! 마닐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차오 클라라, 환영해요!

클라라 라미레츠: 차오 로메, 고마워요! 마닐라는 처음이에요!

로메: 마닐라는 천삼백만 주민이 살고 있는 대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알기 위해서는 지프니를 타야 해요. 그럼 갑시다!

(음악)

클라라: 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왔는데, 이 젠페스트에는 전 세계로부터 6 천 명의 젊은이들이 올 것입니다! 젠페스트의 타이틀은 "모든 장벽을 넘어서"인데, 그야말로 '모든 경계를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로메: 모두가 알다시피, 마닐라는 아시아에 있고 아시아는 젊은이들이 많은 대륙이지요. 실지로 아시아에는 7 억 5 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음악과 배경)

배가 고프면 보통 길을 가다가 식사를 하는데, 이 같은 '카렌데리아'에서 끼니를 해결합니다.

클라라: 카렌데리아 요?

로메: 카렌데리아 는 길거리 식당이에요. 이것은 “아도보”라고 하는데, 간장으로 양념한 닭고기예요. 원하면 맛 보세요..... *(배경)* 맛있어요?

클라라: 맛있네요!

(음악)

로메: 우리는 지금 마닐라에 있지요. 이 바다는 마닐라 만이라고 불러요. 필리핀은 7 천 개가 넘는 섬들이 있어요. *(음악)*

187 개 언어를 사용하며, 주민들 사이의 빈부격차가 매우 커요. 그래서 타갈로그어로 “투룸 투룸 타요”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도움시다”라는 뜻이에요!

클라라: “투룸 투룸 타요”, 함께 젠페스트를 도움시다.

(음악)

젠페스트 이면

(음악)

사라 핀치, 프로그램 책임: 이 젠페스트의 주제가 “모든 장벽을 넘어서”이기 때문에 경험담들이 전 세계, 전 대륙으로부터 모든 국경을 넘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의 한계들 안에서 장벽을 만나요. 하지만 일치된 세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한계들을 넘어가야 하고, 사회적 한계들과 정치적 한계들도 넘어서야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에 관련된 경험담들이 음악, 극, 춤 혹은 단순한 말로 표현돼요.

(음악)

마르첼로 바우티스타, 예술 감독: 곳곳에서 온 600 명의 출연진이 있습니다. 1년간 이를 준비해 왔지만, 며칠 전에서야 함께 모였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음악)*

테마는 자신들이 가진 장벽과, 현재의 자신들의 한계들을 보여 주며, 어떻게 이 한계들을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에 대한 빛을 전달해, 다른 젊은이들도 그들의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배경)*

빅톨 라호츠, 물류 담당 (in inglese):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늘, 모든 게 잘 되어 가는 것은 아니지요. 끼아라는 우리에게 정말 잘 가르쳤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항상 다시 시작합니다. *(배경)*

젠페스트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치된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대한 행사이고, 커다란 협력의 결과 입니다. 무대 뒤에서 이 일치된 세계가 이미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 할 수 있습니다. *(배경)*

부카스 팔라드- 마닐라

클라라: 여러분에게 젠페스트에 대해 얘기하는 것 외에도, 필리핀 포콜라레운동의 삶과 활동도 보여 주고자 해요. 로메와 함께 부카스 팔라드 사회 복지 센터에 갈 텐데, 부카스 팔라드는 “펼친 손”이란 뜻이에요.

(음악과 배경)

글리세 릴 B. 마그나-웅 (Gly, in inglese): 우리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깨달은 날을 기억합니다. (음악)

점심 시간 때었는데, 학급 친구들이 자기 집에 어떤 가전제품들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에게서 멀어 질 핑계거리를 찾았는데,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피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경)

가우덴시아 S. 부욕 (in tagalog): 빈곤에도 불구하고 나의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국수만 먹지 않을 때는 마른 생선, 계란, 채소 등, 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모두에게 충분히 돌아가도록 국수에 물을 많이 타곤 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있는 것도 먹지 않곤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굶고도 견딜 수 있지만, 엄마로서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

글리 (in inglese): 우리는 2 층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월세를 내지 못하자 집 주인이 층계를 철거해 버렸습니다. 원숭이처럼 남아 있던 못을 타고 오르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때가 우리 가족이 가장 어려웠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부카스 팔라드에서 일하던 우리 이웃이 엄마에게 와서 내가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면 어떻겠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나이에 비해 빈약했기 때문에, 스폰서와 사회 복지사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스폰서 중 한 분이 나의 학업 성적이 좋은 것을 알고, 내 학비 조달을 제안하고 용돈과 학용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분이 경제적으로 꽤 부유하긴 했지만, 제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은 하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내게 베푼 친절을 갚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저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음악) 지금 저는 교사로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주제별 코디네이트이기도 합니다.

가우덴시아(in tagalog): 빈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줄 돈은 없었지만, 우리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행위들을 모두 다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입니다.

로메: 글리와 그의 어머니의 삶은 부카스 팔라드를 만난 덕에 바뀌었습니다. 1983 년에 창설된 이 사회 사업 본부는, 마닐라의 1만여 빈곤 가정을 도왔고, 7 만 명의 아이들에게 식사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음악)

이 모든 것은 젊은 세 명의 소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 세실리아 M. 빌라라차 (in inglese): 우리는 막 19, 18, 17 살 이었고,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이 사이의 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는 젠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 시간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해 약간의 의심을 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응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음악)

젊은이들의 도착과 젠페스트 시작

클라라: 감사해요!

캐럴 부란: 천만에요!

클라라: 그런데 이태리어 해요?

캐럴: 네.

클라라: 무슨 일 해요?

캐럴: 여기 정보 센터에 있어요.

클라라: 좋아요. 우리에게 인터뷰를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가 줄 수 있어요?

캐럴: 물론이지요!

클라라: 갑시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캐럴: 캐럴.

클라라: 캐럴, 좋아요, 갑시다.

(음악)

캐럴: 어디서 왔어요?

한 젊은이 (남): 아르헨티나.

한 젊은이 (여): 아르헨티나.

한 젊은이 (남): 칠레.

두 젊은이 함께: 오스트렐리아, 멜번. (음악)

캐럴: 여러분 국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디 출신이에요?

젊은이들: 일본.

캐럴: 이건 어느 나라 국기에요?

한 젊은이 (여): 그리스.

캐럴: 왜 “장벽을 넘어서”라는 타이틀이 필리핀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젊은이 (남):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친구들 그룹, 가족들, 우리 공동체, 우리 운동, 우리 종교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음악)*

한 젊은이 (여): 우리는 60-70 명 정도 이고, 오세아니아, 푸투나,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캐럴: 쟀페스트 즐기세요! *(음악)*

한 젊은이 (여):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극소수만이 이 곳에 올 수 있었어요. *(음악)*

캐럴: 쟀페스트에 만족해요?

그룹: 네! *(음악)*

캐럴: 어디서 왔어요?

한 젊은이 (남): 예루살렘 성지 요.

캐럴: 모두 같은 지역에서 왔어요?

한 젊은이 (남): 아니요, 여러 지역이에요.

한 젊은이 (여): 팔레스티나.

한 젊은이 (남): 예루살렘, 하이파.

캐럴: 여러분은 요?

그룹: 필리핀.

캐럴: 새 친구들 사귀었나요! *(음악과 배경)*

한 젊은이 (여): 많은 놀라움을 기대해요!

캐럴: 감사해요! *(음악)*

한 젊은이 (남):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 다른 문화예요. 이런 경험을 하고, 세상 곳곳에서 온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온 것은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음악과 배경)*

캐럴: 내 친구에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음악과 배경)

(주제가와 무대 위에서 통역 없이 영어로 인사)

가수: Let's go! *(박수)*

사회자 (남,여 함께): 2018 쟀페스트 - '모든 장벽을 넘어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합성과 박수)*

사회자 (여): 좋아요! 북, 중앙, 그리고 남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 있나요? *(합성과 박수)*

사회자 (남):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합성과 박수)*

사회자 (남): 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사람들! *(합성과 박수)*

(음악)

M. 마사 바레니스, 일치를 위한 새 젊은이 (in inglese): 젠페스트는 희망의 젊은 표현이에요. 일치를 위한 새 젊은이로서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것으로 마닐라에 함께 가져가고자 해요. (음악) 우리의 문화를 노래와 춤으로 전하고, 우리 삶의 스타일을 함께 나누어요. 젊은이들이 체험하는 모든 부정적인 것, 느끼고 보는 모든 고통들을 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넘어서고자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 삶의 양식을 공유하고 모든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에요. (음악)

아지즈 (dal palco, in inglese): (...) 내 스토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어요. 잠깐 나와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듯한 느낌이 든 순간을 산 적이 있나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단 하루 만에 자란 집, 친한 친구, 가족, 꿈을 잃게 된 것이지요..... (...)

로메: 아지즈가 18 살이었을 때, 한 그룹의 테러리스트들이 이란의 그의 마을에 쳐들어 왔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그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고, 지금 아지즈와 그의 식구들은 프랑스에 살고 있어요.

아지즈 사텍, 이라크/프랑스 (in inglese): 내게 이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것이 기뻐요. 하느님은 여기 계시고,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요. (음악)

아지즈(dal palco, in inglese): (...) 나는 하느님께 관심을 가졌고,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전히 현 순간을 살기로 했어요. (...)

(박수와 음악)

노래: 평화의 땅-우리 공동의 장소(Tierra de Paz - Our common ground) – 젠 베르데

판초 A의 체험.

(음악)

클라라: 마닐라 남부로 조금 옮겨가겠어요. 문티루파 시에는 3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이 있는 필리핀 최대의 빌리비드 보안 교도소가 있어요. 여기서 판초를 만났는데, 그는 24년 전에 그 교도소 수감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음악)

판초 A. (in tagalog): 교도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전 보다 더 나빠지든지 아니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음악)

나는 좋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음악) 부모님이 주는 돈을 친구들과 술 마시는데, 가끔은 마약 하는데 쓰곤 했어요. (음악) 그 시기에 우리는 마리화나, 코카인, 샤푸는 몰랐고, 코렉스 D를 사용했는데 그 것도 환각에 빠지게 했고, (음악) 바로 그 느낌이 나를 잘못을 저지르도록 충동질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살인죄로 수감되었어요. (음악과 배경)

클라라: 판초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일한, 양초 공장으로 저를 데려가 줄 것이에요. *(음악)* 지난 날들에 그는, 창살 뒤에서 바닥을 체험했어요.

판초 (in tagalog):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관리 소장이 우리에게 물을 길으러 가라고 명령했어요. 물이 가득 찬 양동이를 그에게 가져 갔을 때 그는 양동이를 다 걷어차서 뒤집어 버렸어요. *(음악과 배경)* 나는 “아! 이게 교도소의 삶인가?” 라고 했지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었어요. 유일하게 나를 조금 평온하게 해 주었던 것은 성당에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 나는 포클라레 운동을 알게 되었어요. *(음악)* 많은 출선자들이 교도소에 와서 우리와 함께 복음서를 읽었어요. *(음악)* 한 번은 한 사제가 내게 “하느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시지만, 먼저 네가 네 자신을 용서해야 해”라고 한 것이 기억나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서서히, 만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악)*

4년 6개월 후에 나는 교도소에서 출소했어요. *(음악)* 하느님께서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버리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지금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 남을 수 있었어요. *(배경)*

클라라: 판초는 일반 노동자로 일했고, 후에 감독으로 지명되었어요. 그리고 공장이 협동조합이 되었을 때는 예상치 못한 목표에 도달했어요.

판초 (in tagalog): 저는 전체 관리자가 되었어요. “한 전과자가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고들 했어요. *(음악과 배경)* 이런 경험 후에, 저의 꿈은 전과자들을 도울 수 있는, 한 회사를 갖는 것이에요. 이것은 많은 이들의 문제로, 직장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음악)*

제가 출소했을 때는 지닌 것이 아무 것도 없었지만, 제가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악)* 내가 기도하고 청하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하느님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지만 늘 희망은 있어요. *(음악)*

노래: 그래서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So the world may know) – Embo Rodriguez

탐방

(음악)

클라라: 여기 ‘세계 무역 센터’에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험, 익스플로(EXPLO)가 있어요. *(음악)*

에리카 이바손, “EXPLO” 전시 큐레이트: EXPLO는 단지 하나의 전시회 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에게서 시작하여 형제애 차원의 경험을 하게하는 멀티 미디어 및 양방향 여행의 체험장이에요. *(음악)*

클라라: 인류의 이야기를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민족과 문화 간의 평화와 우정의 단계를 통해 말해요. *(음악)*

신티아 핑크의 경험 (롤리) – 드 라살 대학

(배경)

로메: 여러분이 보드시피 여기는, 빌딩들과 판자집들이 공존하는 한 거대한 도시 마닐라 도심입니다. 빈민가에는 자주 물도 나오지 않고 전기도 공급되지 않습니다. 하수구도 없습니다. 오수는 바로 도시의 수로로 유입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젠이었고, 지금은 세인트 비 네운 대학에서 건축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티아 핑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음악)

마리아 신티아 Y. 핑크, 드 라살 대학 건축학 부장 (롤리, in inglese): 끼아라가 남녀 젠 모두를 불러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끼아라의 말이 가슴과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음악)

마닐라의 문제점들은 공기와 물의 오염, 잘못된 폐기물 관리 그리고 사람들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늘 그랬던 것처럼 계속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

학교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고자 학생들과 함께 우선 우리의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자 했는데, 반응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클라라: 그래서 핑크 교수와 학생들은 파식 강 하구 청소와 강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라이언 차이 카바 네즈, 건축학과 학생 (in inglese): 작년에 우리는 점보 기술로 강의 수로를 청소하고 동시에 폐기물을 정화하고 수질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어느 부분에 쓰레기가 가장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

클라라: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참여시켜,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롤리 (in inglese): 예술 디자인 대학은 27 개의 "바랑가이스"(구역)과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각 구역은 약 600 가구이며 각 가구는 7-10 명으로 구성됩니다. (음악)

레이 날도 하 베이 하 베이, barangay 5, 732 구역장 (in tagalog): 이 모든 것들은 다른구역 (distretti)에서 온 것입니다. 이 쓰레기의 일부는 다른 구역 (distretti)에서 온 것인데 물살이 우리 쪽으로 흘러와 축적시켜 커다란 더미가 됩니다..... (음악)

롤리 (in inglese): 우리는 그들이 다행이라고만 여기지 않도록 대화 하고자 하며, 그들과 얘기할 때, "여러분과 협동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레이 날도 (in tagalog): 그들은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수로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음악)

리안 (in inglese): 최 부인이 제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했을 때, 저는 수로를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지역 사회를 재건축하는 것이었으므로 큰 열정을 느꼈습니다. (음악)

아시아의 밤

(음악)

마르첼로 바우티스타, 예술 감독: '아시아의 밤'은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다른 지역 참가자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필리핀 젊은이들은 처음으로 이 곳에서 젠페스트를 하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음악과 노래: 인도 - 한국- 필리핀- 파키스탄 - 인도네시아 - 타이완과 중국 대륙- 말레이시아 - 필리핀)

인류를 위한 손

(음악)

로메: 오늘은 젠페스트가 마닐라의 거리로 이동합니다. 오늘 아침에 젊은이들은 매우 다양한 110 개 주제의 포럼 왕따, 소셜 미디어, 환경, 개인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 관리 등에 참여했습니다. (음악)

클라라: 이 순간은 'Hands for humanity', 인류를 위한 손 입니다.

연대, 현대의 여러 활동들 중에서 선택을 한 청년들 몇몇은 (음악) 마닐라 해변을 청소하러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종교간 나눔'의 시간을 갖고 있는 모바이 불교사원에 와 있습니다. (음악)

팔라완 – “KA INATO” 식당

(음악)

에릭 (in tagalog, sottotitoli in inglese): 우리 환경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삶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우리 해변은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는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많은 이가 장애 형태로 살고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았을 때,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청력 검사를 시작했지만, 무언가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눈빛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돕기로 한 저의 결정은 그들 스스로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자신감을 얻고 자신들의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세릴 리베라 (nella lingua dei segni, sottotitoli inglese): 안녕하세요! 저는 세릴 리베라 입니다.

우리 청각 장애인들은 많은 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느님께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를 받아준 직장이므로, 이 특권에 대해 에릭에게 감사 드립니다.

에릭 (in tagalog, sottotitoli in inglese): 세릴은 우리의 첫 번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많고, 일 습득력이 매우 빠르고, 창의력이 풍부하며,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을 아주 잘 해냅니다

세릴(nella lingua dei segni, sottotitoli inglese): 예전에 우리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음악)* 이제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음악)*

청각 장애인들이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울고 기도했던 밤이 기억납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너희 가족이 너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용기를 갖고 이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에릭 (in tagalog, sottotitoli in inglese): 끼아라 루빅은 제 영적 지도자 중 한 분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오늘 네가 해야 할 유일 한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세릴(nella lingua dei segni, sottotitoli inglese): 저와 같은 이들에게 저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음악)*

에릭 (in tagalog, sottotitoli in inglese):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막: "저는 청각 장애인이며 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감각들을 활용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 세릴 리베라

ICT – 젠페스트 소셜 미디어 팀

(음악)

파오 파간, ICT – 소셜 미디어 팀 (in inglese): ICT 는 국제 통신 팀 입니다.

여기서는 비디오와 다양한 소셜 플랫폼에 젠페스트를 전달하기 위한 소셜 카드와 같은 창작물을 제작합니다. 우리 팀의 특징은 다양한 국가와 사회 배경에서 왔지만 하나의 팀처럼 함께 작업하며, 젠페스트를 전파하고자 하는 소셜 플랫폼들을 위해 각자가 최상의 자료들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잔-폴의 경험

(음악)

잔 폴(dal palco, in inglese): (...) 어느 날, 잠에서 깨어 났을 때 가슴부터 다리까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음악)*

클라라: 에지데는 르완다에서, 잔 폴은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극적인 상황에서 만났습니다.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잔 폴이 공격을 받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는데 에지데가 병원에 데려가고 몇 개월을 돌보며 구해주었습니다.

에지데 (dal palco, in inglese): (...) 나는 잔 폴을 온종일 돌보기 위해 퇴직했습니다. (...)

클라라: 잔 폴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일치를 위한 새 젊음이' 도움 덕에도 해 냈습니다.

잔 폴(dal palco, in inglese): (...) 결국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개의 목발을 잡고 걷기 시작했고, 1년도 되기 전에 하나의 목발 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 *(박수와 음악)*

잔 폴 무하누치, 부룬디 (in francese): 에지데는 르완다 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돕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당연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잔 폴(dal palco, in inglese): 하느님께서 저를 강하게 지켜 주시고, 단념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를 때린 이들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포콜라레 운동에서는 모든 이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만약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과 똑 같습니다. 내 원수와 마주칠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용서할 용기를 냈습니다.

(음악)

노래: 우리의 색깔과 맛 (Nos Couleurs et nos saveurs) – 쟈 포코

엠마우스 인사와 결론

마리아 보체, 포콜라레 운동 회장: (...) 끼아라는 여러분에게, 모든 문화의 특징인 보물을 마음 속에 담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일치의 남녀, 즉 남녀 세계인이 되라는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

우리는 빙산의 떠오르는 부분이 물에 잠긴 바닥에 얹혀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형제애는, 일상의 행동과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우리 마음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행한 행동들에 의해 건설됩니다.

우리의 가슴이 고통치는 한 우리는 사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치된 세계가 하나의 실현된 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기 원하는 매혹적인 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박수와 노래)

클라라: 우리는 방금 엠마우스의 얘기를 들었고, 이제 켄페스트가 끝나가고 있는데 로메 어땠나요?

로메: 클라라, 여기 아시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리듬을 분석하지 말고, 리듬을 타세요.” 리듬은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해요! 이것이 이 켄페스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젊은이들이 아시아의 리듬을 탔어요. 우리 필리핀 켄들에게는 여기서 켄페스트를 열게 된 것이 영광스러웠고, 끼아라가 내건 일치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전 세계에 전할 수 있어요!

클라라: 그러면, 이제 이 합동전화 특집을 끝냅시다. 함께 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클라라와 로메: 마닐라에서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Ciao!

주제가와 자막:

2018 마닐라 – 켄페스트 “모든 장벽을 넘어서” 합동전화

각본: Stefania Tanesini e Egilde Veri

사회: Maria Clara Ramirez e Romeo Vital, con Karelle Bulan

카메라 감독: Mathew Muscat-Drago, Kim Rowley, Kyle Venturillo, JR Calicdan

편집: Marco Tursi

조 감독: Dalma Timár

지역 제작: Robert Samson

제작: Sara Brogi

감독: Marco Aleotti

필리핀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와 2018 켄페스트 국제 통신 팀에게 (Breaking Rays 프로젝트 – 엠마우스 유럽 연합 공동 자금 조달)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